

[첨부2]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 인사말씀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담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Thank you, Ambassador Michael.

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회원사와
주요기업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대사님 소개 및 참석자 소개>

오늘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미하엘 대사님께서서는 EU에서 외교와 안보는 물론
OECD 무역·환경전문가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신 무역 전문가이신만큼
양 경제권의 경제협력에도 전문성과 관심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저 역시 OECD대사로 있으면서
유럽과 한국과의 다방면의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했고,
EU와의 업무관계도 매우 많아 그 과정에서
좋은 친구들도 만나면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 함께 해주신
미하일 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기업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U의 중요성과 오늘 조찬의 의의>

참석자 여러분!

EU와 한국은 경제협력에 있어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2019년 기준 EU는

한국의 전체 FDI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투자 경제권*입니다.

동시에, 한국 입장에서 EU는 3대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 對한국 FDI('19년,역불,도착기준) : EU 71.0(53.4%) > 아주(중화제외) 34.9 > 미주 25.1

** 한국의 ODI('19년,역불,도착기준) : 아시아 199.8 > 북미 159.3 > 유럽 135.6

현재 한국 굴지의 제조,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유럽의 27개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슬레, 볼보, 바스프 등 2500여개 세계적인 유럽 기업도 한국에서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으며 실제 한국인의 일상생활에는 이미 와인부터 자동차까지 유럽산 제품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 유럽진출 한국기업 : 27개국 760개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디렉토리)
- * 한국진출 유럽기업 : 2,511개사 (영국 등 비EU국 포함) EU기업 2,079개사

이렇게 경제협력이 긴밀한 만큼 코로나19 팬데믹이 양 경제권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합니다.

최근 다행히도 한국과 유럽에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완화 추세를 보이면서 공장 재가동 등 경제활동 재개 조짐이 있지만 수요 부진과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는 요원해 보여 우려가 매우 큽니다.

- * IMF : 세계 경제 성장률 - 3.3%(유럽 - 6.5%, 한국 - 1.2%)
전 세계 경제적 손실은 내년까지 9조 달러(약 1경 966조원) 예상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 대사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① 기업인 출입국 제한조치 예외 필요성>

먼저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습시다만 긴급한 비즈니스상의 목적을 위한 기업인의 출입국 제한조치가 완화되도록 가장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생산법인들이 다수 진출한 체코와 폴란드를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기술인력들이 유럽에 입국하지 못함에 따라 품질 관리 등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 그리스: 5/18까지 비EU국가 국민대상 입국금지
- 네덜란드: 5/15까지 비EU회원국, 비셴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금지
- 독일: 5/15까지 EU+ 역외국가 국민 입국 금지
- 스위스·슬로바키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체코: 5/25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프랑스: 6/15까지 쉥겐지역, 비EU국 입국 금지
- 폴란드: 5/13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최근 EU에서는 면역증명서* 발급을 통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정상화를 앞당기자는 논의가 있는 만큼
한-중이 합의한 '기업인 패스트트랙'과 같은 조치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EU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면역여권(immunity passport): 獨, 英, 伊 등 유럽 국가들에서 항체검사를 통해 Covid-19 항체
보유자에게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증명서로 논의, 단, WHO 2차 유행 우려 표명

<포스트 코로나 ② 현지 진출 우리기업 지원 필요성>

둘째로, 유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응의 종착점은 경제정상화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든, 유럽에서든
일자리를 책임지는 기업이 살아나야만 가능합니다.

가계 경제의 버팀목인 일자리를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
각국 정부의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 또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③ 韓-EU 통화스왑 등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간 협력을 넘어서
한-유로존간 경제협력이 통화스왑 등
더 큰 협력으로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랍니다.

한-EU FTA 이후 약 10년을 거치며 양 경제권의 교역은
그 어느 곳에 뒤지지 않을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통화스왑은 본격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양 경제권이 함께 지혜롭게 잘 극복하기 위해
금융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결제와 금융거래의 30%를 차지하는
2대 기축통화인 유로화와의 통화 스왑은
한국의 경제와 기업,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

양자 모두에게 필요한 경제협력 장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바로

원-유로 통화스왑 체결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사님께서 EU 집행위 측에 적극 말씀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전경련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한국 내 여론 조성을 위해 다음달 2일 전문가 좌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사님의 적극적 역할 기대>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는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도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한국과 EU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그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 EU 각국 정부에 잘 전달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美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英 브렉시트, 伊 이탈렉시트 가능성 등

<마무리 말씀>

오늘 미하엘 라이터러 대사님께서

현재의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과 EU가 함께 어떻게 경제협력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지

의미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해안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대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사님, 부탁드립니다.